

## 2025 우주선 단기 선교여행 돌아보기

이름 : 조하진

대부분 단기선교여행의 경험이 삶에 깊은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각자의 경험을 나누고 평가해서 다시 삶에 적용하도록 하는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 1. 단기 선교 기간동안 가장 좋았던 것은?

- 선교동안 가장 좋았던 것은 좋은 만남과 회복의 시간 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처음 만나는 이들과 함께 했던 첫 선교이니만큼 기대와 걱정이 함께 들었었다. 하지만 걱정이 무색하게 우주선 팀원 한분한분, 예미희 선교사님과 뽕 교수님, 여행중에 만났던 선교사님들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멋진 어른 들 모습은 성인을 눈 앞에 둔 나에게 큰 자극이자 미래를 설계함에 있어 좋은 이정표가 되어주었다. 또한 입에 맞는 좋은 음식과 편안한 숙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나누기 위해 태국으로 떠났던 나에게 나눔 이상의 선물로 다가왔다. 이 두가지가 선교기간중 내가 느꼈던 가장 좋은 점이다.

### 2.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교훈은?

- 사실 마지막 날 직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선교를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하시려는지 명확한 메시지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3일차 마지막 공연 실패와 춤으로 섬기라는 뜻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실패 또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며, 내가 해야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김과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믿고 부담과 욕심을 내려 놓을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각을 아득히 뛰어넘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 3. 가장 기억에 남는 일 또는 장소와 그 이유

-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는 3일차 세미나를 진행했던 한국어수업 교실과 교실 뒤에 있는 화장실이다.  
3일차, k pop - 공연 중 마지막 곡 이었던 '한페이지가 될 수 있게' 를 나의 실수로 망치고 마음이 정말 어려웠다. 나에게 맡겨진 일을 제대로 마무리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자책과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부끄러움에 무기력하게 텅빈 교실에서 앉아 있었다. 그러던와중 수아는 나에게 같이 춤을 추자고 했고, 가뜩이나 자신감이 바닥 이었던 나는 '내가 뭘 더해', '또 좋지 못한 모습이나 보여주겠지' 라는 생각으로 부탁을 여러번 거절했다. 그런 나를 어르고 달래던 수아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설득을 그만 두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도 이걸 안하실 거야 절대 못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화장실에가서 볼일을 보고 손을 씻으며 거울을 보는데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다. '난 네가 춤추는거 보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은 비웃어도 난 너의 마음을 아는걸 잘추고

못추가 중요한게 아니라 그 학생들이 저 친구는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들게 하는것, 궁금하게 하는 것 그거면 된거 아닐까?’

교실로 돌아와서 곰곰히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알게 되었다 나는 날 믿었던 것이다. 내 기타 실력을 믿었고, 날 보이려고 했다 앞선 공연의 성공에 취해 있었고, 내가 드러내야 할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말았다. 날 믿었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난 이제 무엇을 해야하는가?’ 답은 정해져 있었다. 남은건 내가 그토록 부정하던 정답에 **yes**라고 순종하는 것. 한참을 고민하던 나는 결국 수아에게 ‘연습만 해보자, 잘 하면 하고 못하면 말고’ 라고 말했다. 최선을 다해서 30분 동안 동작을 연습했고, 무대에 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나의 실패를 하나님의 일로 사용하셨다. 부족했을 것이다. 미숙했을 것이고 웃음이 나오는 몸짓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함께 웃을 수 있었고, 나의 춤을 본 누군가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궁금해 할지도 모른다.

공연이 끝나고 정말 후련했다. 더 이상 내것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였을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내가 드러내야할 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알게 하였고, 나의 실패를 다시 마무리할 기회를 주셨다.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놀라운 일이다.

#### 4.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신 일을 요약한다면?

- 실패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신 것,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것  
실패를 딛고 일어날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나누게 하시며 감사하게 하신 것

#### 5. 되돌아와서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 10일 정도의 선교로 망가진 공부 루틴을 회복하는 것이 돌아온 후 주어진 가장 큰 도전이었던 것 같다.

#### 6.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은?

- 선교의 처음과 끝까지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심에 감사
-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다양한 이들을 만나게 하시고 특히 선교사님들을 삶을 가까이서 보고 함께하게 하심 감사
-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의 기쁨을 누리게 하심 감사
- 고3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결과 또한 하나님께 맡겨 드리겠다는 다짐하게 하심 감사
- 먼 타지 하나님을 모르는 태국과 우따라딿 대학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심 감사
-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며 신앙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심 감사

#### 7. 잊지 못할 에피소드

- 2일차 밤에 숙소 화장실에서 엄지손가락 2개만한 바퀴벌레가 나왔는데 이걸 잡으려다가 세면대 구멍으로 들어가버려서 놓쳤었다. 다음날 아침에 비몽사몽하게 일어났는데 세면대에 그녀석이 있는

것이다! 바로 휴지들고 다가가서 휴지로 싸서 변기에 던지고 물을 내렸는데 승민쌤이 그녀석이 혹시라도 침대로 올라봐 제대로 못했다고 하셔서 정말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8. 지체 재발견! 우주선 안에서 이 지체의 새로운 모습을 보았다.
  - 백지은 선생님, 정간사님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경외심과 약간의 거리감이 느껴졌는데 선교 내내 솔선수범하시는 모습 특히 치앙마이 시장에서 썩태우를 흥정하시며 열연을 펼치시던 모습은 정간사라는 타이틀에서 생긴 경외심을 선생님 그 자체에 대한 경외심으로 바꾸어 주었다. 임혜선 선생님과 다르게 정확하시고 계획적이신 모습 또한 인상적이었다.
9. 태국 치앙마이 우따라딿 선교 추천사 및 충고! 가기 전에 이것은 꼭 알아두자!
  -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몸이 너무 편안해서 ‘이게 선교인가?’ 라는 의문 갖지 말기! 어렵고 힘들어야만 선교가 아니며, 우따라딿 선교는 선교사님의 필요를 채우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선교사님을 위로하고 우리가 가져간 것들을 나누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더욱 은혜로운 선교가 될 것 같다:)
10. 힘들었던 부분, 부족했던 점, 보완했으면 하는 점, 다음 태국선교를 준비할 때 이것만은 꼭 점검하자 하는 부분은??
  - 더욱 기도로 준비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교의 시작을 돌아보니 기도로 준비한 시간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다음 선교 때는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어 매일매일 나와, 동료들,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